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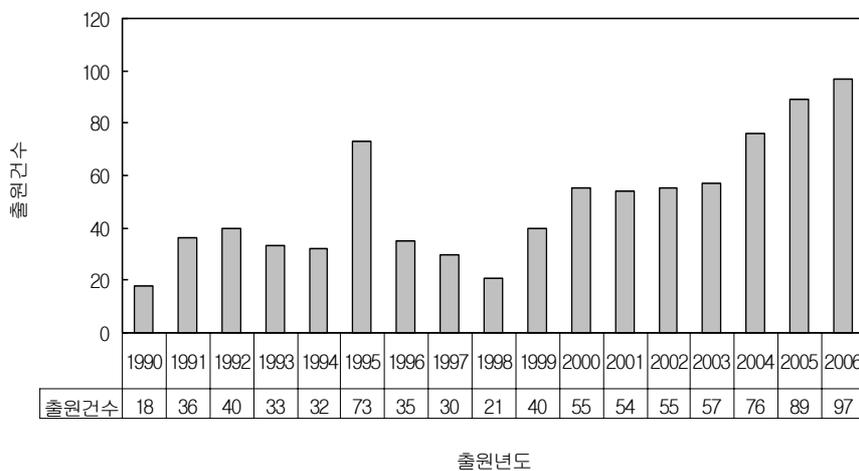
쓰레기통, 발효 분해물질 분사 소독까지

종량제, 분리수거 등 쓰레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쓰레기통에도 새로운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특허출원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.

특허청에 따르면, 1995년 이전까지 한해 평균 31건에 불과하던 쓰레기통 관련특허가 2001년 54건, 2004년 76건, 2006년 97건 출원되는 등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.

출원되는 기술도 과거에는 쓰레기를 담아버리는 단순한 통에서 최근에는 종량제,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관련기술들이 출원되고 있으며, 특히 음식물 쓰레기통은 악취 제거, 살균 또는 발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.

쓰레기통 관련 특허 출원동향



2001년 이후 출원 중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종량제 쓰레기 수거 기술이 전체 출원의 16.2%, 쓰레기 재활용 기술이 24.3%, 음식물 쓰레기 관련기술이 33.2%로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

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전자칩으로 인식해 공기 이송방식으로 수거하는 기술, 수납부 바닥 높이를 변형시켜 재활용 쓰레기의 파손을 방지하는 기술, 음식물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통

덮개에 오존 및 자외선 발생램프를 장착하는 기술, 살균을 목적으로 미생물과 소독액으로 이루어진 발효 분해물질을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이 출원되고 있다.

또한 살균과 악취제거 기능에 부가해 전자저울을 설치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 수 있도록 하거나, 살균 탈취된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규격 비닐봉투에 밀봉 저장하는 기술도 있다.

<화학저널 2007/04/27>